

학생 중심 수업 문화의 실현

교습(instruction)이 중심을 이루는 고전적인 교실 환경에서 성공적인 교사들은 종종, 좀 더 예측하기 어렵고 비체계적인 학생 중심적(student-centered) 활동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들은 "왜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굳이 변화를 주어야 할까"라고 반문합니다. 명확한 정답이 없는 학습 활동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처럼,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통제하는 교실 환경에 수반되는 복잡성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고차원적 사고(higher-order thinking), 팀워크, 문제 해결과 같은 21세기 핵심 역량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복잡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성취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이러한 유형의 평가가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Black, et al., 1998).

이처럼 학생 중심 수업과 형성 평가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기주도력(self-direction)을 얻기 위한 여정은 그리 간단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말없는 관찰자 또는 '나쁜 방관자'의 역할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학습 과정에 거부감을 보일 수 있으며, 특히 수동적인 학습이 일반화된 주제의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Black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교사는,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위해 암기할 노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은 또 고전적인 평가 방식을 포기하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형성 평가는 시험 점수가 아닌 학습 과정 자체를 중시합니다. 학생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성취도를 모니터하도록 요구 받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질문을 던지도록 독려합니다. 간단히 말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요구 받습니다. 일부 학생과 교사에게 이것은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보상에 초점을 맞추는 고전적인 교실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단순한 '학생(student)'이 아닌 '학습자(learner)'로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거의 제공받지 못합니다.

교실 문화의 초점이 보상, 시험 점수, 학급 순위에 맞추어져 있는 경우,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능력을 개선하기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데 치중하게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이러한 교실 환경에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경우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 학생들은 "올바른 정답"의 단서를 찾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Guskey, 2005).

앞으로도 대부분의 교실에서 시험 점수가 완전히 사라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시험 점수의 중요성을 최소화하고, 쉽게 채점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대신, 과제와 자기 평가를 이용한 학습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학습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학생들은 협동, 문제 해결, 비평적 사고와 같은 구체적 능력에 대한 교습과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Black의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형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주제 영역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만 치중하는 대신 학생들이 도전적인 과제를 통해 자기주도력, 협동과 같은 21세기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데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교습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